

9년만에...올해 5·18 기념식 ‘임 행진곡’ 마음껏 제창한다

문재인 대통령 37주년 기념식 참석 제창 공약 반쪽 기념식 끝...정부 공식행사 위상 되찾을 듯

5·18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이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으로 이어진 9년간의 설움을 딛고 제 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제창(齊唱)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 공식행사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5·18정부기념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 없는 5·18기념식’도 4년 만에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되는 등 5·18정부기념식이 정부 공식행사로서 위상을 되찾을 것이란 기대가 지배적인 이유는 10일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광주 방문 자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공약을 지역민에게 공언했기 때문이다.

국가보훈처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식순 결정은

새정부 방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10일 밝혔다. 보훈처 측은 “지난해 같은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식 식순이 결정되지만 전임 정부 국무위원 일괄사표 제출, 기념일까지 남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식순 결정 과정이 예년과는 크게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대통령 결심을 거쳐 기념식 최소 2~3일 전 식순을 확정·발표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제창은 기념식 참석자 전원이 함께 부르는 형태로, 합창단이 부르고 원하는 참석자가 따라부르는 합창과는 그 의미와 무게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5·18단체 회원과 광주전남 시민사회가 제창을 반대하는 정부에 맞서 기념식 행사를 수년간 보이콧한 것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거부에서 ‘5·18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부 의지를 읽었기 때문이다.

보훈처가 문 대통령의 5·18 관련 공약을 알면서도, 선불리 정부기념식 식순을 확정하지 못한 데는 여러 해석이 나온다. 이 중 지난 9년간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거부하고 별도의 기념곡을 공모하는 움직임은 보이는 등 철저하게 5·18피해자, 광주·전남 민심과 배치되는 행동을 보여오다 막 출범한 새정부 측으로부터 ‘별도의 신호’를 받지 않고 그간의 방침을 바꿔 발표하는 것은 부당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5·18관련 공약은 알고 있지만 대통령 결심을 받기 전 보훈처가 기념식 방향을 먼저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대통령 참석,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대한 대통령 결심을 받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5·18단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 자격으로 5·18기념식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힘껏 제창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면서 “문 대통령이 약속을 지켜주셔서 이번 5·18기념식을 기점으로

땅에 떨어진 5·18의 위상이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을 추모하는 노래이자 한국 민주화운동을 대표하는 민중가요다. 지난 1981년 5월 백기완의 미발표 장시 ‘뫼비우스의 한 부분’을 차용해 소설가 황석영이 가사를 짓고 전남대 학생 김종률(현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이 곡을 붙였다. 5·18 당시 희생된 윤상원과 노동운동가 박기순의 영혼결혼식에서 불러진 이후 민주화 바람을 타고 급속히 전국화했다. 국내를 넘어 아시아 등 세계 곳곳에서 불려지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경과 보고’ 5월단체가 말기로

3단체 중 누가 할지 논의

5·18민주화운동 정부기념식의 주요 식순 가운데 하나인 ‘경과보고’를 본래대로 5·18민주유공자 유족회 등 5월 3단체가 맡기로 했다. 5월 3단체가 “우리가 경과보고 하겠다”며 힘겨루기를 벌이면서 정부 측으로 주체가 넘어간 이후, 경과보고 내용에 대한 5·18외곡, 축소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 여론 탓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에 맞춰 5·18기념식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데 3단체가 뜻을 모은 것도 하나의 이유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10일 “제 37주년 5·18민주화운동 정부기념식 경과보고는 5월 3단체가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5·18유족회 측은 “지난 2009년부터 광주지방법보훈청장, 국립5·18민주유공자관리소장이 기념식 경과보고를 해왔는데, 매년 그 내용에 대해 5·18외곡, 축소 비판이 일었다”면서 “시민들께 죄송하다. 늦었지만 새정부 출범에 맞춰 경과보고 주체를 가져오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올해 경과보고를 3단체 중 누가 할지는 현재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과보고는 5·18민주화운동 발생 배경과 전개 과정, 의미 등 항쟁의 경과를 기념식 참석자들에게 밝히는 공식 식순이다. 지난 1997년 5·18특별법에 따라 기념식이 정부 주관으로 치러진 이후 2007년까지 출몰 5·18유족회가 발표자로 나섰다. 그러던 중 지난 2008년 5월 정수만 전 유족회장이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신경진 당시 5·18부상자회장이 잠시 넘겨받았다. 이 과정에서 ‘유족회 부회장이 맡아야 한다’(유족회), ‘유족회만 독점하면 되느냐’(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잡음이 일면서 이듬해부터 광주지방보훈청장과 국립5·18민주유공자관리사무장이 경과보고를 해왔다.

기념식의 ‘주인격’인 5월 단체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보수정권 아래 정부 측 인사들에게 경과보고가 넘어가다보니, 경과보고 내용에 대한 비판이 거듭됐다. 지난해 기념식 경과보고에 “80년 5월 21일 오후 1시경 금남로를 가득 메운 시민들은 계엄군과 밀고 밀리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부상당했고... 광주 전역으로(시위가) 확산함에 따라 계엄군 진압 작전이 감행됐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공수부대를 앞세운 계엄군의 무자비한 유흥잔압이 아닌 ‘밀고 밀렸다’는 표현, 과잉진압에 따른 시위 확산이 아닌, 시위 확산에 따른 진압작전 감행 등 5·18의 진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 정부 기념식에서 버젓이 낭독된 것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사랑의 급식 나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와 삼성전자 자원봉사센터 임직원들이 10일 광주시 서구 금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랑의 급식나눔’ 행사를 벌였다. 적십자와 삼성전자는 오는 11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저소득 취약계층 6300여명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학교 방학 기간에는 아동복지센터에서 밀린찬 도시락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조선대 이사장실 봉쇄...이사회 퇴진 촉구 농성

민주동우회 소속 회원들

이사회측 경찰 투입 요청 검토 개방이사 추천 놓고 갈등 고조

조선대 구성원들이 이사장실을 봉쇄하고 이사회 임원 퇴진 농성에 들어갔다. 법인은 총장에게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는 한편, 경찰 투입 요청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조선대에 따르면 대학 내부 단체인 민주동우회 소속 회원 등은 이날 오전 학교 이사장실·법인 사무처장실 등을 봉쇄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임기가 끝

난 이사회 임원들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며 사무실 봉쇄 농성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내부에서는 이사회가 최근 개방이사 선출 권한을 위임해줄 것을 요청하는 구성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교육부에 개방이사를 추천해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항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법인 이사회측은 “행정업무를 볼 수 없도록 이사장실과 법인 회의실 등을 봉쇄한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학교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총장에게 정상화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

다.

법인은 또 “조속한 업무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교수·직원·총동창회 등으로 구성된 조선대 대학자치운영협의회(대자협)와 조선대 개방이사추진위원회를 관할하는 대학평의원회는 12일까지 후보자 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추천하겠다는 교육부 입장과 관련, 이날 오후 대응책을 마련하는 회의를 열기로 해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기표 용지 확인해 달라” 소란

○...후보자 간 여백이 없는 사전투표용지가 발급됐다는 허위사실을 접한 뒤 투표소를 찾아가 자신이 기표한 용지를 확인해달라며 소란을 피운 남성 A씨가 경찰서행.

○...10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선 사전투표일이었던 지난 5일 오전 북구의 한 사전투표소에 항의 방문, 투표소 앞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

○...경찰은 A씨가 지난 4일 사전투표를 마친 후 다음날 다시 방문해 “사전투표지에 여백이 없었던 것 같다”면서 본인 기표한 용지가 가짜 투표용지인지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는데 투표관리관이 “투표함은 밀봉된 상태이니 확인이 어렵다”고 답하자 소란을 피웠다고 설명. /전은재기자 ej6621@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풍암동 중심 상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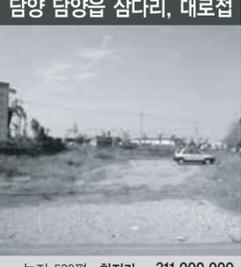
대지 400평, 건물 100평
매매가격 1,700,000,000

광산구 오선동 공장(진곡산업단지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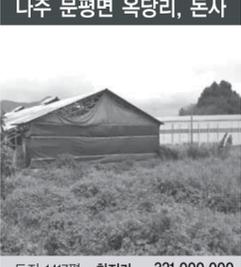
대지 2531평
건물 753평
최저가 4,278,000,000
감정가 6,112,000,000

담양 담양읍 삼다리, 대로점



농지 523평
개발촉진지구
최저가 311,000,000
최고가 311,000,000

나주 문평면 옥당리, 둔사



토지 1417평
건물 484평
최저가 321,000,000
최고가 321,000,000

광산구 쌍암동 (무인텔)



대지 415평
건물 577평
최저가 2,521,000,000
최고가 4,502,000,000

서구 화정동 원릉(화정역인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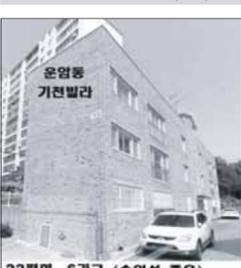
토지 94평
대지 157평
최저가 549,000,000
감정가 784,000,000

동구 금남로3가 근린시설



토지 118평
건물 305평
최저가 742,000,000
감정가 1,059,000,000

운림동 기전빌라



22평형 6가구 (수익성 좋음)
대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 5억2천만원
세대당 용차 6,000만원 월세45만원

제일오피스텔 29층



감정가격 9,000만원
매매 6,300만원
보통급 500坪 월세 25-40만원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